

# 우여곡절 끝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마무리

## 광주·전남 21대와 동일한 선거구 유지 향후 양원제 도입 등 대안 마련 과제

4·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진통 끝에 통과시킨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는 233석에서 254석으로 늘었다. 대신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의석을 47석에서 46석으로 줄였다.

여야 합의에 따라 광주·전남의 경우 21대 총선과 동일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을 이어가다 보면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선거구의 인구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이라는 2개 원칙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4대 1에서 3대 1, 2대 1로 서서히 좁혀왔다. 이번 총선 선거구를 정할 때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편차 허용범위를 13만6천600~27만3천200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현상이 나타나는 농어촌 선거구의 경우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지키기가 어렵게 사실통계다.

정치권에서는 인구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이 충돌하는 선거구 획정의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하원제 도입, 시·도별 의석수 배분, 의원정수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선관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선거구 획정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인구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을 양립시킬 대안으로 양원제 도입을 제시했다.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게끔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고 이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으로 나누는 방법도 거론된다. 이는 지역 대표성 측면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인구수는 5천131만3천912명(18%)이 거주하는 서울에는 총 의석을 55개 배정하고, 이를 지역구 의석 46개

와 비례대표 의석 9개로 나누는 식이다.

결국 '양원제' 도입과 같은 정치적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가 향후 정치권에 남은 과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광주·전남 정치인들은 동부권과 서부권별로 이번 선거구 획정에 대해 상이한 반응을 내놓았다.

서삼석 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산어촌 대표성 반영한 획정안을 환영한다"며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지역 대표성의 개념과 주제를 분명히 해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항엽 예비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는 "지역민들은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분노와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며 "그동안 선거구 획정 정상화를 줄기차게 촉구해왔던 것만큼 국회에 입성하면 비정상적인 선거구를 정상화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 '친문' 임종석·홍영표 거취 주목... '文明 충돌' 분수령

### 洪 '탈당 시사'에 任도 거취 표명 임박... 비명 '연쇄 탈당'은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의 충돌 양상이 중대 기로에 섰다.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영표(4선·인천 부평) 의원이 나란히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면서 이들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친문 세력 주축인 이들이 동반 탈당할 경우 최종 공천에서 낙마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줄지어 가담하면서 사실상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최근 자신의 옛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되자 당 지도부에 해당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으나 결국 거절당했다.

그는 2일 페이스북에 "(지도부가)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내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적었다.

더는 지도부에 추가 요구를 하지 않

는 만큼 임 전 비서실장이 향후 거취에 대한 속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탈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임 전 실장 측은 3일 "지금은 임종석의 시간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속의 중인 상황"이라며 "이번 주 안으로는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 의원은 지난달 29일 컷오프가 확정되자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며 이미 탈당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그는 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 학살 뒤에서 히히덕대는 부도덕한 정치를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 민주와 평화의 가치가 온전히 서는 정치로 가겠다"며 탈당을 재차 시사했다.

비명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홍 의원은 경선만이라도 시켜주면 탈당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당이 두 쪽 나더라도 비명계 핵심은 숙청시키

겠다는 게 친명 지도부의 의지"라고 비판했다.

두 사람의 거취가 이른바 '文明(文明·문재인-이재명) 충돌'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들이 나란히 당을 나가더라도 비명계 의원들의 연쇄탈당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조선·서울 구로) 의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4선·서울 구로갑)이 각각 텃밭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본선에 직행한 것은 임계점에 차오른 비명계 반발을 그나마 누그러뜨렸다는 분석도 있다.

친문 핵심인 전해철(3선·경기 안산 상록갑) 의원에 일단 경선 기회를 준 것을 두고도 내부 통합에 방점을 둔 결정이라는 해석도 있다.

전 의원은 경선 참여 입장을 밝힌 만큼 패배하더라도 탈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경선에서 떨어지면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로 재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서동용, '여성전략특구' 재고 요구

### "전략공천 성립할 수 없는 상황" 지적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3일 전략공천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도단체 기준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는 이러한 당 지도부의 공천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저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차이로 전체 1등을 기록한 바 있다"며 "전략공천의 합당한 이유

가 현역 국회의원에게 설명되지도 않은 채 갑자기 '여성전략특구'라는 것을 들고 나와 일방적으로 단수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시스템 공천이나"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단수로 추천된 권항엽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영입 인재도 아닐 뿐더러 지난 수 개월간 저를 포함한 다른 민주당 예비후보들과 동일하게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경쟁



해 온 후보"라며 "따라서 전략공천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정활동 평가 하위 20%에 들지도 않았고 당 지도부가 임명한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거건회 위조논문의 의혹과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에 맞서 김인철·박순애·정순신·이규용 등 부적격 후보자들의 사퇴에 결정적 기여를 해왔다"며 "현역 의원으로서 경선조차 치를 수 없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답변을 해달라"고 지도부에 요구했다. /김진수기자

## 이낙연, 광주 출마회견 잠정 연기

### "민주세력 결집·확장 위해 할 일 생겼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3일로 예정됐던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다.

새로운미래는 지난 2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출마 회견을 잠정 연기한다"며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

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회견은 며칠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다. 출마 지역구는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서구를 또는

광주의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로 재선을 노리는 민형배 의원이 있는 광산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출마 회견 연기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에 따른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조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광 출신인 이 대표는 중학교 때 광주로 옮겨 광주제일고를 졸업했으며, 그동안 광주 출마 검토 배경에 대해 "고향이고 호남의 중심"이라고 설명해왔다. /김진수기자

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